

건강 칼럼

반복되는 사례, 사망 초래 가능 연하장에 위험신호

올해 초 한국 영화사의 한 회를 그은 배우 안성기씨가 별세했다. 고인은 2019년 현역 임종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그러던 중 자택에서 음식물이 복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알려졌다.

의학적으로 조식스럽게 추경해 보면, 현역임 부병 과정에서 전신 체력 저하와 근력 감소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삼킴에 관여하는 근육 역시 약화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도도 유입돼 기도를 막으면서, 흉부나 기도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삼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삼킴(swallowing)은 음식물을 인지해 입으로 가져온 뒤 구강 → 인두 → 식도 → 위로 이동시키는 다양한 신경, 근육들의 조화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해부학적으로 기도와 식도는 앞뒤로 매우 인접해 위치



이숙정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해 있다. 기도는 항상 열려 있는 구조인 반면, 식도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음식물이 넘어갈 때만 열린다.

# '사레'와 '질식'의 차이

'사레'나 '질식'이라는 표현은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 식도가 아닌 기도 쪽으로 잘못 넘어가 기침이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 강한 기침 반사를 통해 이물질이 배출되지만, 반복되는 사례는 연하장애의 신호일 수 있다.

반면, 질식은 음식물이 기도를 완전히 또는 거의 막아서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뇌졸중, 파킨슨, 중양, 치매, 근감소증 등 연하곤란 원인 다양

연하 곤란 원인은 다양하다. 뇌졸중, 파킨슨, 두경부 종양, 신경근육 질환 등으로 인해 삼킴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 신경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에서 치매, 근감소증, 알파 같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신 근육이 저하되면서 삼킴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에도 연하 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연하 곤란 증상으로는 식사 중 기침이나 사레들린, 목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느낌,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 느낌, 식사 후 복소리가 쉬거나 짙은 소리가 나는 경우, 식욕 저하, 음식물을 가만히 묵고만 있는 행동 등이 있다.

특히 '무증상 흡인'처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감각 저하로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도로 들어간 음식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폐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하 검사는 대표적으로 재흡입학(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이나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하는 후두내시경(Laryngoscopy)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치료는 연하 곤란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구강, 인두 자극 및 강화 운동, 삼킴 훈련, 음식물 점도 조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삼킴, 즉 연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 그러나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받는 생리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삶의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상 활동이기도 하다. 인접하고 행복한 식사를 유지하고 더 큰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연하 곤란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 및 시이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AI의 첫 전쟁 참전

미국이 이란 공습에 AI를 활용하면서, 이번 전쟁은 사상 처음으로 AI가 투입된 전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쟁마저 AI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인명 살상에서도 오직 효율적인 방법만을 고르는 AI의 판단이, 과연 앞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3일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은 단 2시간 30분 걸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제거는 개시부터 사망 확

인까지 15시간 걸렸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 생포까지 9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20여 년 전과 달라진 건 인공지능

의 존재다. AI가 처음으로 전쟁에 본격 동원된 것이다.

데이터 분석기업 퀴런타어의 '고답'은 위성사진과 정찰·통신 기록을 분석해 이란 군사시설과 은신처를 찾아냈다. 앤스토프의 AI 클로드는 공습 직전까지 수만 가지 시나리오 중 최적의 작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의 표적 추적 속도는 인간의 사고보다 훨씬 빠르다. 과거 며칠 또는 몇 주 걸린 일을 순식간에 하게 됐다. 기계가 심사숙고하고 인간은 승인만 하면서, 생각을 기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AI의 판단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또 다른 논란이다. 이번 공습 때는 초등학생이 폭탄이 떨어져 어린이 등 160명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 AI가 표적으로 삼았는지 미군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남·용산 아파트값 하락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구와 용산 집값이 하락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보니,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호가보다 6~7억 원은 낮춰야 겨우 팔릴 정도다.

이렇게 집값 상승을 이끌던 지역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도 5주째 둔화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던 매물이 실

연휴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한 달 실제 거래된 집도 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평 대 3건은 호가보다 7억 원가량 싸게 팔렸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집값은 2주 연속 하락했고, 특히 강남구와 용산구는 내림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도 5주째 둔화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가격을

낮춘 구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까 기다리며 나서지 않고 있다.

토חה 받고 하려면 안전하게 4월 초까지는 토지 거래 신청을 해야지만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쓸 수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조금 더 급해지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

비강남권도 강남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까 기다리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해당되는 세입자 긴 매물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호가들을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리서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4월 초가 다가올수록 아파트값 하락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 체결된 구매물들의 실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공개되고, 시한에 쫓기는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자재언

가는 길에 태워준다는 말, 호의 아닌 불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는 길에 태워주면 사례를 받겠다", "기름값만 보태 달라는 형태의 개인 간 유상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보기에는 단순한 호의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여전히 유상운송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문제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은 영업 목적 운행이나 유상운송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역시 치료비와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상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

생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탑승자가 범죄에 이용될 물품을 운반하거나 불법 행위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운전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용돈벌이' 또는 '호의'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간 불법 유상운송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 생활비 부담 증가, 단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편의와 경제적 이유가 법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합법인지 몰랐다'는 인식 부족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시민 대상 홍보와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낯선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대가를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김현철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nd mentions subscription information.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